

● 발표 주제

기능안전 적용 차량 제어개발 현황



최지훈

Gi Hoon Choi

현대자동차

제어프로세스개발팀/책임연구원

Professional Career

- 2010~현재 제어프로세스개발팀
- 2009~2010 엔진 제어시스템 개발
- 2003~2009 디젤엔진 성능 개발
- 2009~2003 항공기 추진계통 개발

● 발표초록

2011년 최초로 공표된 기능안전 국제표준은(ISO-26262) 차량 단위의 종합적인 안전성 확보뿐만 아니라 자동차 분야 전장품질 확보에 대한 효과적인 개발, 관리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현대차는 본 표준의 국제적인 제/개정 활동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외 협력사와 함께 기능안전 국제표준을 실질적인 전장 시스템 개발 체계화 및 개발 도구화 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신형 싼타페 이후 양산되는 현대, 기아, 제네시스 브랜드 전 차량은 기능안전 국제표준을 반영하여 개발 완료 되었거나 개발 중에 있다.

기능안전을 차량 개발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OEM 내부의 프로세스, 설계, 평가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에 더하여 협력사의 개발 체계 변화를 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대차는 국내/외 전문가 그룹과의 협력과제를 통하여, 동사 차량 및 전자 제어 개발 현황에 부합하는 표준 절차, 엔지니어링 가이드, 개발 템플릿, 평가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보급 중이며 관련한 기능안전 교육을 실시 중에 있다. 2018년 개정된 2nd Edition은 이미 개발 체계에 반영되어 있으며, ADAS 및 AD 차량을 위한 SOTIF 표준에 대응한 프로세스, 방법론 개발 및 내부적인 업무 표준화가 진행 중이다.

본 발표를 통해 현대차의 기능안전 대응 제어개발 현황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를 제공하고, 차량 각분야 개발 전문가들의 프로세스 및 기술 관점에서 향후 제어개발 체계 운영에 대한 의견을 얻고자 한다.

